

전북도,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 시행

지원예산 시·군 협의 완료... 51억원 추가 지원

전북도는 2018년도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고등학교 무상급식비 중 15%를 도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시·군과 협의했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8년 도내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지자체 예산은 약 132억원이며, 도비 지원금액은 약 51억원으로 추산된다.

전북도는 열악한 도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시·군 간, 도·농 간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균등 지원하기 위해, 도시뿐만 아니라, 농어촌 고등학교도 같은 비율로 도비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해왔다.

그 결과, 대부분 시·군에서 도비 지원 방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고교 무상급식 확대에 참여하기로 했다.

도는 이달 내 2018년도 무상급식 지원사업 본예산안에 51억원 증액한 약 233억원의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2018년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힘을 합쳐 준비하고 있다. 예산을 차질없이 마련하여 학부모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4분기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열여

전주시는 27일 오후 전주시청 4층 회의실에서 김승수 시장과 김명지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부대, 경찰서 등 통합방위 주요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4/4분기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를 개최했다.

전북 살림규모 늘리기 마지막 승부수

송하진 도지사, 국회 방문
핵심사업 증액 건의 분주

송하진 도지사는 27일 국회를 찾아 정세균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2018년 국가예산 반영 막바지 활동에 나섰다.

이번 한 주는 예결소위가 진행되면서 막판 증액사업에 대한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 반영에 있어 예결위 심사단계까지는 도와 시군, 지역 정치권의 긴밀한 공조를 기반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던 전북도의 주요 예산들에 대해 기재부에서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받게 되면 한 해에

산농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게 되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최종 예산 의결하는 데는 국회 예결위의 양당 간사와 기재부 제2차관, 예산실장 등이 핵심 키를 쥐고 있으며, 12월 2일 의결을 앞두고 있어 막판 총력에 따라 예산반영 상황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다.

이에 그동안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1월 들어서만도 여섯차례(1, 2, 6, 9, 21, 27)에 걸쳐 2018년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펼쳤으며, 이러한 활동결과가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확보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

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에게는 새만금 랜드마크 조성(전망타워) (250억) 지원과 지방비 매칭요구로 예산이 미반영된 사업으로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61억)과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206억), 전라도 천년을 기념하기 위해 호남권 3개 시·도가 기념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나 관광사업이라는 이유로 생활기반 계정으로 추진을 요구하는 전라도 새천년 공원 조성사업(10억)에 대한 지원,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완공을 위한 여타면제 등 행정절차 신속 추진과 사

전타당성 검토 용역비(10억) 지원 등을 협조 요청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는 전북기아사 연구 및 복원사업(83억) 추진, 전라도 새천년 공원 조성사업(10억)등을 전했다.

현안 해결을 위한 법안 개정 건의 활동으로 연금 규모가 매년 성장 추세이므로 안정적인 운용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연금 전문대학원 설립이 절실한 상황으로 이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이 차기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열악한 복지현실 극복, 효심정책 두각

임실군, 2년연속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지자체 선정



임실군이 2년 연속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지자체로 선정, 효심복지 정책의 롤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7일 임실군은 지난 해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는 전라북도 우수지자체로 선정, 타지자체와는 차별화된 복지정책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해 임실군은 보건복지부가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초생활보장분야 종합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900만원 포상금을 받은 바 있다.

올해는 전북도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지역민들의 기초생활

보장에 우수한 행정력을 인정받았다. 임실군은 농촌지역의 열악한 복지 현실을 극복하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민들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한 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군은 복지정책을 활발히 전개한 결과, 기초생활보장분야 외에도 의료급여분야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분야, 교육지원 분야 등 종합적인 복지정책에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직원들의 포상이 줄을 잇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찾아가는 맞춤형복지 실현에 열정적으로 노력해준 복지 관련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더불어 행복한 맞춤형복지 실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 나가자"며 "내년에도 군민들이 피부를 느끼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추진해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임실군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도인재육성재단, 미래인재 '꿈과 열정' 날개 달아준다

특기장학생 장학증서 수여

전북도와 (재)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이사장 최병균)은 27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미래인재특기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었다.

이날 장학증서 수여식에는 김승일 도 행정부지사와 최병균 인재육성재단 이사장과 이사, 장학생 및 학부모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미래인재 특기장학금은 도내출신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예체능 및 기능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전라북도의 우수 인재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고등학생 40명(예술 26, 체육 8, 기능 6), 대학생 10명(예술 6, 체육 4)이 선발돼 고등학생은 80만

원, 대학생은 10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최병균 이사장은 "꿈과 지적 호기심을 가슴에 품고 학업에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김승일 행정부지사는 "도전하는 자만이 꿈을 이룰 수 있으며 장학생 여러분의 도전과 열정이 전북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밝게 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격려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 관광해설사 워크숍 개최

전문성 강화 · 발전방향 모색

전북도는 27일 전주 JS호텔에서 김승일 전라북도행정부지사, 이병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민항식 한국문화관광해설사중앙협의회장,

여춘희 전라북도문화관광해설사회장을 비롯한 문화관광해설사와 시군 관광업무 담당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은 전라북도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스토리텔링 발표대회를 통해 전북의 문화관광자원

에 대한 스토리를 공유하는 한편, 고품격 해설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짐을 위해 마련됐다.

한편 전북도는 이날 워크숍을 통해 전라북도 문화관광 발전에 힘쓰는 공로를 인정받은 공무원(2명), 문화관광해설사(11명) 등 총13명에게 표창과 감사패를 수여했다.

/김진성 기자

도 선관위, 사랑의 연탄 배달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봉사단체인 '공명이 사랑나눔회'는 27일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에서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웃 47가구에 총 1,000장의 연탄을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사랑의 연탄'은 '공명이 사랑나눔회'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마련한 것으로써 소속 회원 26명이 참여, 직접 각 세대에 배달했다.

'공명이 사랑나눔회'는 도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활동 모임으로 지난 2007년도에 결성된 이래 꾸준히 연탄배달·불우이웃 성금전달·배식봉사 등의 나눔·봉사활동을 실천해오고 있다.

'공명이 사랑나눔회' 신운재 회장(군산시선관위 사무국장)은 "추운 겨울을 보내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온기가 전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소외된 어려운 이웃들이 모두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